전매광장

문정기
광주전남 과총 부회장

대학등록금 따져보기

이제 대학등록금, 정확히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었다. 바야흐로 상아탑의 속내가 교외로 삐져나오게 되고 학생은 그만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반값이 주는 매력은 대단하다. 우선 절반이어 부담이 줄어드니 좋고 간단해서 부르기 좋고 박자도 잘 맞아 떨어지니 계속해서 반복해도 별로 싫증이 나지 않아 캠페인으로 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반값이란 단어는 애당초 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으로부터 출발한 '반값 아파트'가 원조다.

오늘의 대학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 30%, 10%로 뚝뚝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공약 포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학운영 및 유지비용의 일부

대학 등록금의 원가를 따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회 교육과학위 상임위원 몇 분에게 부탁을 해봐도 답은 '글쎄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이다. 한마디로 챙겨줄 게 없다는 얘기다. 대학이란 게 본디 비영리 조직이니까 절대로 장부상 이익이 생길 리는 없고 모자라는 걸 국가가 보조해 +, -, = 0 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대학을 상아탑이라 부르기도 하며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주는 게 사실이다.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대학등록금 따지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와도 같다.

대학은 돈을 남기면 안 되는 조직인건 분명하지만 다른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사회적 서비스기관이다. 그런 면에서 등록금 원가를 한번쯤 따져보자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공산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탄생과 소멸이 분명하다. 소위 원가라는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공산품 원가 구성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료비에 노무비와 제반경비를 합하면 된다. 원가(cost)의 3요소다. 대학의 경우도 똑 같아 아파트 관리비처럼 전 학년 공통배분비용은 고정비, 공대 실습비는 변동비 이런 식이다. 교수나 강사의 급여는 직접비, 교직원의 급여는 간접비다.

대학의 교육원가는 통상 대학의 교육목적과 대학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자원 등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화폐 지급액의 총액을 이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 전체의 화폐 지급액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등록금이 비싸다고? 비싸긴 비싸다.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교육원가는 이의 10배 정도가 된다. 등록금+보조금+예비적비용으로 어림잡아 국립대의 경우 연 1억 정도가 투입된다. 여기에는 대학연구비와 건물 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기회비용이 포함되며 석·박사과정이라 그렇지만 KAIST의 경우는 이의 3배 정도에 이른다. 나머지 비용은 국민세금, 소위 사회적비용에서 충당된다. 마치 우리가 지불하는 버스요금 만큼의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버스 운영회사에 지급된다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학은 거의 드물게 완벽에 가까운 '공급자의 시장'이다. 먹고살기 어려운 70년대에 진학률 80%의 경이로운 기록을 갖는 한국, 돈 없어 교육을 포기하는 나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국민선호의 대학졸업장 우선의 나라다. 입학자원이 줄어서 그렇지 이 시장이야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절대 우위에 대학이 존재해 왔다.

교육시스템 개혁에서 출발해야

곰곰이 따져보면 등록금이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반값이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악을 면하려면 너무나도 올라버린 등록금을 끌어 내리는 것이지만 최선의 길은 결국 대학의 틀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이다. 교육이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함께하는 헌법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대학교육 비용의 일부이듯이 대학교육 전체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숙제거리이다. 우리는 등록금보다는 등록금에 관계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문교부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몇 년 전 문교행정의 책임자 말이 생각난다. 작금의 세태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사설

수입개방 앞서 한우농 대책 우선돼야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해 지역 한우 농가들이 아우성이다. 수입위생조건이 월영 30개월 미만 뼈까지 포함한 터라 사실상 전면허용인 셈이다. 한우농가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도 없이 시장을 개방한 터라 구제역 파동으로 큰 시름을 겪은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이해하고 남는다.

농수산식품부는 엊그제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8년여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특히 월영 30개월미만 뼈까지 포함 사실상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한우 농가들은 지난 겨울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은 터이다. 특히 내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향후 한·미 FTA 비준 및 발효 등이 예고돼 있어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농민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다. 광우병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캐나다에선 지난 2월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현재진행형이라 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광우병 다발국에서 쇠고기 수입결정을 한 것은 국민건강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을 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양국의 무역협정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구제역 여파로 무려 5조원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로선 엎친데 덮친격이다. 광우병이 현지에서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도 꺼림칙하다. 이번 수입개방 조치가 어쩔 수 없었다면 최소한 엄청난 시름에 잠긴 축산농가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후 수입을 재개했어야 마땅하다.

안전 미흡해 철거위기 놓인 놀이터들

대부분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내년 1월27일 이후 안전관리법 기준에 미달되면 다시 설치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주로 민간이 설치한 놀이터는 재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8년1월26일 시행 후 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이 기간 안전에 부적합한 놀이터는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결국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왔지만 민간 놀이터는 예산이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무런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 아파트들이 문제다. 지난 4월말 현재 총 2,908개의 광주지역 놀이시설 중 1,942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989곳은 공공시설로 광주시 예산을 통해 재설치가 가능하지만 민간시설인 953곳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재설치에 수 천만원이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탓이다.

심각하기는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다. 광주 유치원과 초등학교 269곳의 놀이시설 중 적합판정을 받은 곳은 52곳에 불과하다. 재설치가 불가피한데도 30억원이 예상되는 예산계획은 아직까지 못잡고 있다. 놀이터가 완벽히 안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기준적용만을 들이민다면 어린이 놀이공간은 침해받을 게 뻔하다.

안전기준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줬더라도 놀이터 재설치 비용을 염출하기 힘든 서민들의 고충이 작지 않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다. 아파트마다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겠지만 놀이터 재설치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기자수첩

다시 시작하는 도의회 1년

정근산
정치부 기자

9대 전남도의회가 내달 1일 개원 1년을 맞는다.

9대 도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무소속 4명, 민노당 3명, 한나라당 1명 등 비민주계 진출이 두드러져 민주당 일색에서 탈피했고, 초선 의원들이 전체 의원 62명 중 41명으로 71%에 달해 출범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런 참신함과 다양한 구성원을 바탕으로 도의회는 지난 1년간 198건을 심의·의결했고 조례안은 32건 제정, 일부 또는 전부 개정 76건, 폐지 4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농업포럼 등 각종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F1대회를 치른 후 대회운영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일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문제점을 지적해 의회가 가진 역할도 충실히 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는 아직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다.

개원 초기 교육의원들과 일반 의원들간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시급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는 등 도의회의 꼴불견은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체 의원 62명 중 8명이 공직선거법과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사건, 뇌물사건 등에 연루돼 휘말려 있는 등 도덕성에도 흠집이 났다.

무엇보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뉜 의회내 소지역주의는 도민의 대의기구라는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장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임시회만 보더라도 최대 안건이었던 F1대회 개최권료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 동의안' 처리를 두고 동부권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점은 두고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F1 대회의 재정부담을 질타하던 의원들이 동·서부간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예산 경감방안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서부권 의원들이 '두고보자'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등 촌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도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은 싸늘하다. 지켜보기 괴롭다는 말도 나온다.

7월 1일이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정례회를 시작으로 도의회의 또 다른 1년이 시작된다. 괴로운 도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건 의원들 스스로의 몫이다.

기고

포스코, 한국 외교의 축소판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같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기업들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상대국의 정부를 포함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성립이 필요하게 되며 더 높은 성과를 위해 범국제적 차원에서 민간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코(POSCO)이다.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용광로 업체로 대부분의 종류의 철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개발부와 같은 포스코 내의 부서들은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각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인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포스코는 지금까지 인도대사·인도정부 산업부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인사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 차례 만남을 통해 인도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대표적인 외교 성공 사례라 볼 수 있다.

포스코의 기업 자원 확보와 세계시장을 향한 민간 외교활동은 세계 곳곳에서 활보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 장관과의 환담회를 거쳐 성공을 이끌어 내었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빅토르 야누코브치 대통령과 므콜라 아자로프 총리와의 환담회를 가져 현지 투자사업을 논의하였으며,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몽골의 정부인사와 기업인을 만나 철강산업 발전 공동연구 MOU를 체결, 호주에서는 글로벌 자원개발을 위해 현지 광산업체와의 협력 방안 등 을 논의 하는등 민간외교의 끝임없는 노력으로 포스코를 빛나게 하고 있다.

세계주식부자인 워런 버핏이 극찬하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세계로 뻗어가는 그 이름 포스코.

글로벌 세계를 향한 포스코에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김영은 (광양제철고 3년)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발행·편집인 申龍浩 편집국장 李斗憲

대표전화 (062)720-1000·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720-1098~99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서울지사	(02)704-2166
FA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70~72	FAX	(02)704-2167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인쇄처	다원 인쇄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6~17	E-mail=jndn@chol.com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전남매일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독자광장'은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시를 싣는 자리입니다. 굳이 전문가 수준의 좋은 글, 훌륭한 사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남매일을 독자 여러분의 신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머@세상

▩ 남편의 화난 얼굴

헤픈녀가 성생활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물었다.

"섹스를 할 때 남편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예, 딱 한 번."

"어땠나요?"

"화가 나 있었어요."

의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헤픈녀가 말하길,

"남편이 창문 밖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 임시 주차장

가족끼리 모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철모르는 막내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그 앞에 볼록한 건 뭐야?"

아빠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흠흠…응 그건 그랜저."

이번에는 엄마를 말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엄마 것은 뭐야?"

"그랜저 주차장"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누나 것은?"

"응, 임시 주차장"

▩ 넌센스 퀴즈

1.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잡스런 개는?
- 꼴불견
2. 유일하게 날로 먹을 수 있는 오리는?
- 회오리
3. 초등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는?
- 방학동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5월 29일)

子 48년생 전에 못한 일에 다시 도전하라. 60년생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72년생 꼬였던 일이 조금씩 풀리고 일에 진전이 있겠다. 84년생 연인과 친구를 분명히 구별하라.

丑 49년생 부드러운 미소가 필요한 날. 61년생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 73년생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85년생 돌부리를 차면 내 발만 아프다.

寅 50년생 너무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 62년생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쁜 일이 엇갈린다. 74년생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말라. 86년생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卯 39년생 돈이 새 나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51년생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 것. 63년생 리더십은 있으나 일이 잘 되지는 않겠다. 75년생 동분서주 바쁜 일이 많아진다.

辰 40년생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껏 할 것. 52년생 내일보다는 오늘에 최선을 다할 것. 64년생 도장 찍기 전에 다시 봐라. 76년생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교섭하는 날이다.

巳 41년생 노력과 베푼 공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53년생 매사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65년생 무진장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귀인 상봉하니 날개를 단 운세이다.

午 42년생 여행 운이 좋으니 움직이면 좋다. 54년생 먼저 양보하면 그 이상의 보답을 받는다. 6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라. 78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준비할 것.

未 43년생 엉뚱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울 것. 55년생 바쁘게 활동해도 문제가 없다. 67년생 과음하면 망신수가 따르기 쉽다. 79년생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

申 44년생 외출할 일이나 사람 만날 일이 생긴다. 56년생 대인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열심히 노력 끝에 성공한다. 80년생 운이 열렸으니 슬기롭게 대처하라.

酉 45년생 젊은 사람처럼 패기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 57년생 선견지명을 이용하여 타인을 구제하라. 69년생 주위의 변동을 잘 이용하면 좋다. 81년생 소원하는 일 이루어진다.

戌 46년생 명예가 높이 올라가고 대접을 받을 날이다. 58년생 아무리 달콤해도 피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다. 82년생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

亥 47년생 느긋하게 마음먹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59년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83년생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청곤선생 제공(대전대학 철학과 사주·성명·관상학·풍수지리학 등 명리학과목 강좌 개설) 02-766-1818 www.esazu.com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우체국 민원 1300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자원봉사센터 1365
- YWCA가정법률상담소 527-0011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철도안내 1544-7788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전국여객선터미널 1544-1114
- 전남도청 (061)286-2000
- 광주시청 223-3000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